

베이징 뒷골목서 아랍 이슬람 문화까지 빛고을서 아시아를 느낀다



‘광주에서 아시아를 만나다’
일본,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생활상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시민 서포터즈와 공동으로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시아 문화 이해 강좌’는 오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시민들을 만난다.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쉽고 흥미로운 소재로 아시아로의 여행을 안내한다. 9일에는 ‘일본의 전통과 현대-일상 생활 속의 일본 문화’(홍성희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를 주제로 강좌가 열리며 이어 ‘베이징 뒷골목’(최경호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외사촌과 혼인하는 남인도 사람들’(박정석 목포대 역사문화부 교수), ‘몽골 유목민의 삶과 민속’(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 ‘아랍 이슬람문화의 이해’(황병하 조선대 아랍어과 교수) 등이 준비돼 있다.
강좌 후에는 조선대 아랍어과 학생들의 벨리댄스 공연(9~11일), 인도 전통 문양인 ‘해나’ 체험(23~25일) 등 문화 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 12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몽골의 전통 천막인 ‘게르’ 체험, 몽골 전통 의상 입어보기 등이 열리며 몽골의 전통 장난감인 ‘사카이’로 접해도 볼 수 있다. 문의 062-230-0188.
전남대 박물관은 개관 50주년을 맞아 인도의 문화와 역사, 인도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박물관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전남대 융복문화

문화도시 추진단 내달 14일까지
표문화 강좌·체험 다양한 행사
전남대 융복문화관 ‘인도 강좌’
인도문화 현지체험 답사행사도

불화와 다양한 인도신상을 만날 수 있다. 062-223-0045
그밖에 광주와 가까운 보성에 위치한 티벳박물관에서는 티벳 관련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남대 일본문화센터와 호남대 공작아카데미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관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문화강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 전문가 13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7일 류경희 서울대 강사 ‘힌두 축제의 종교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 강좌에 이어 ‘인도음악의 이해’(윤혜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고구려 벽화의 인도무용’(오인우·그림 공구르) ‘영화 사랑의 땅, 인도’(이은구 한국외대 교수) 등 7개 강좌가 오는 12월 19일까지 개최된다.
이와 함께 인도문화를 현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도 답사행사도 마련된다. ‘인도, 그 놀라움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인도답사는 내년 1월14~26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240만원. 문의 062-530-3591.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인도박물관에 가면 인도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200여평의 상설 공간에는 인도 악기, 생활용품, 인도 세밀화 등이 전시돼 있으며 아시아박물관에서는 고려

전남대박물관에서 열린 인도의 ‘짜이’차 시음회(아래)와 인도의 전통 염료로 그린 ‘해나’ 문양(위)



한국학 호남진흥원 2009년 건립 설립추진위 창립총회... 내년 3월까지 50억 모금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사업이 본격에 오른다. 오는 2009년 건립될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호남인의 사상과 문화, 역사적 업적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호남학의 본산이 될 전망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상임 공동대표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는 8일 오후 6시 센트럴관광호텔 로즈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첫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50억원의 건립기금을 모금하는 한편, 1천5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건립 비용을 국비 지원 받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박석무 운영위원장장을 비롯해 이종범 조선대 박물관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김상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등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223-0131. /윤영기기자 penfoot@

앤디 그렉스 ‘요로코롬 자전거 가구’ 연작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기증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돼 인기를 모았던 ‘요로코롬 자전거 가구’ 연작이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기증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6일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앤디 그렉스(미국)씨가 디자인 비엔날레 본 전시(Green Zone-환경의 빛) 출품작 ‘요로코롬 자전거 가구’ 연작을 재단에 기증함에 따라 작품을 비엔날레 카페에 영구전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요로코롬 자전거’ 시리즈는 페 자전거 부품을 이용해 만든 의자, 테이블 등 모두 9개 작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요로코롬 자전거’ 연작 중 ‘리우지 체어’

한희원씨 中 초대전 상하이 주기찬 미술관

시심(詩心)이 배어있는 서정성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한희원씨가 중국에서 초대전을 갖고 있다. 한씨는 중국 상하이 ‘주기찬 미술관’에서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별, 바람, 나무, 마을 등 동경의 대상들을 통해 관람객들을 깊은 사색의 세계로 이끄는 작업세계를 선보인다. 이번 초대전은 올 7월 명지미술관에서 열린 한씨의 개인전을 관람한 ‘주기찬 미술관’ 큐레이터의 초청에 의해 마련됐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8차례 개인전과 수백회의 국내외 초대, 기획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미술그룹 ‘새벽’ 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18-625-439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떠들이 별’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오늘 ‘천원의 낭만’

(사)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진행하는 ‘천원의 낭만’이 7일 31사단 총장 호수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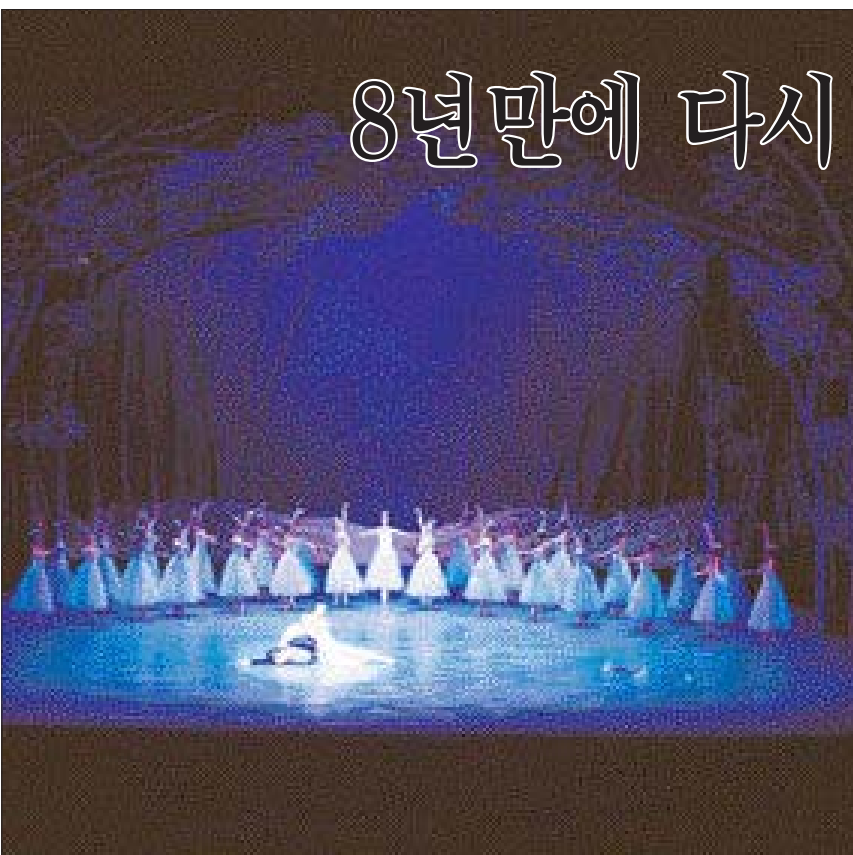
너 하만택, 소프라노 김진희, 여성 성악가들의 모음인 ‘한소리회’ 등이 출연한다. 한편 공연예술제는 매달 천원의 낭만 프로그램을 무료 관람하고 문화 관련 정보를 공유할 문화 회원들을 모집중이다. 문의 062-521-32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8년만에 다시 만나는 ‘지젤’

광주시립무용단 전막 공연 9일·10일 문예회관 대극장

남만 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젤’은 클래식 발레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중 하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지젤의 청순가련한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지젤’은 프리마 돈나의 테크닉도 인상적이지만 손끝과 발끝에서도 뿜어나는 애절한 연기와 표정, 그리고 작품 전체에 흐르는 비극적 정서가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치게 만든다.
특히 사랑하는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은 지젤이 1막 마지막에서 추는 춤은 발레리나들에게 고도의 기량과 연기력을 요구하는 명장면 중 하나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영애)이 지난 1999년 이후 8년만에 ‘지젤’ 전막 공연을 준비했다. 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5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작품은 모두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은 아름다운 소녀 지젤이 로이스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로이스와의 사랑에 행복해 하던 지젤은 로이스가 바티스트 공주의 약혼자인 알브레히트라는 사실을 알고 비탄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다.
2부의 배경은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가. 애인에게 배신 당한 젊은 여인들의 혼령으로, 젊은 남자를 유혹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원한을 갚는 율리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젤의 무덤에 참회하러 온 알브레히트는 율리들에 붙잡혀 제물이 될 위기에 처하고 지젤은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춤을 춘다.
주인공 지젤 역은 구윤지·조나경씨가 맡았으며 알브레히트 왕자역에 강병창, 김치환씨가 출연한다. 그밖에 조성미·김지희·이국희·조재욱·최윤정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5천원.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메가박스</p> <p>구.런던국사거리 ☎061544-0600</p> <p>M관식객 (12세) 최고급관 2관식객 (12세) 3관킹덤 (18세) 4관M (15세) 5관바르게살자 (15세) 6관아깨너머의연인 (18세)/러지던티블3 (18세) 7관블랙달리아 (18세) 8관궁녀 (18세) 9관히어로 (12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대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무로잡은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p> <p>엔터시네마</p> <p>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블랙달리아 (18세) 2관 킹덤 (18세) 3관 M (15세) 4관 바르게살자 (15세) 5관 식객 (12세) 6관 러지던티블 (18세)/아깨너머의연인 (18세) 7관 궁녀 (18세)</p> <p>www.entercinema.co.kr</p> <p>* 넓고 편안한 국내-음외 주차장 300대 *</p> <p>*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환호시람 영화시람 *예매: www.joyco.com / 1588-7941</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시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p> <p>1관 M (15세) 2관 편지레이다 (15세)/아깨너머의연인 (18세) 3관 히어로 (12세) 4관 킹덤 (18세) 5관 블랙달리아 (18세) 6관 궁녀 (18세) 7관 바르게 살자 (15세)/식객 (12세) 8관 러지던티블 3 (18세) 9관 바르게 살자 (15세) 10관 식객 (12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일심야 상영합니다</p> <p>콜롬버스 상무점 (10:00) 잘린리 상영중 1588-7941 성명연연 밤방 (11:00 or 2:00) ~연</p>	<p>색깔있는 영화시람 *www.cinusc.co.kr / 1544-0070</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히어로 (12세) 2관 궁녀 (18세) 3관 바르게 살자 (15세) 4관 M (15세) 5관 러지던티블 3 (18세)/아깨너머의연인 (18세) 6관 블랙달리아 (18세) 7관 식객 (12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 사무(오른사-캐비세)</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 / 1588-9101</p> <p>무등극장</p> <p>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히어로 (12세) 2관 블랙달리아 (18세) 3관 궁녀 (18세) 4관 M (15세) 5관 바르게 살자 (15세) 6관 식객 (12세) 7관 러지던티블 3 (18세) 8관 아깨너머의연인 (18세) 9관 킹덤 (18세)</p> <p>*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p> <p>• 컴퓨터 체면인물 위한 전용휴구미련 • 관람예의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세로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p> <p>제일시네마</p> <p>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식객 (12세) 2관 블랙달리아 (18세) 3관 히어로 (12세) 4관 궁녀 (18세) 5관 바르게살자 (15세) 6관 M (15세)</p> <p>*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p> <p>*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